

30년 동안 꽃들이 피었다 졌음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상 증

겨우내 움츠렸던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더니 또 한꺼번에 저갑니다. 먼저 홍매화와 산수유가 싹을 틔우는가 싶었는데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배꽃이 연이어 지천으로 피었고, 예전에는 5월에야 볼 수 있었던 라일락까지 불러냈습니다.

요 몇 년 사이 봄꽃이 피었다 지는 걸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러저런 질곡들로 ‘봄이 되 봄 같지 않은’ 세월들을 견디느라 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꺼번에 피었다 지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30년 전 6월의 거리에도 꽃이 만발했습니다. 도시마다 수천, 수만의 흰옷 입을 사람들이 꽃으로 피어났고, 명동길 어귀 높은 빌딩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들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렸으며, 최루탄들이 송화가루같이 도회의 거리를 부유했습니다. 4월혁명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시위대와 꽃처럼 어울려 무리지어 피어났던 것입니다.

6월항쟁 30년을 맞습니다. 겨우내 주말마다 꽃잎처럼 피어났던 촛불들과 또 한견에서 나부끼던 태극기의 물결도 어느새 사그러들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나라를 만들고 평화통일의 길을 내는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6월민주항쟁 30년 사업들을 통해 녹여낼 것입니다. 30년 전의 6월과 오늘의 6월을 씨줄과 날줄로 교직하는 일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여는 일에 기꺼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여년을 떠올려보니 피었다 지는 꽃들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